

23.91% ↑ 압도적 ‘허니문 랠리’… 추가상승 전망은 ‘이견’

李 정부 100일, 증시 새역사

코스피 29.67p 오른 3344.20 마감
정책 불확실성 해소 박스권 탈출
연초 순매도 外人, ‘매수’ 돌아서
키움, 코스피 상단 3550p 제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박스권에 갇혔던 국내 증시는 역대급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67포인트(0.90%) 상승한 3344.20에 마감했다. 장중 3344.70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7월 세계 개편안 발표 후 박스권에 머물던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역사를 새로 쓰는 모습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는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11일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재명 정부는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압도적인 ‘허니문 랠리’를 보여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인 6월 2일 2698.97이었던 코스피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11일까지 23.91% 올랐다.

이제는 ‘국장(국내 주식시장) 갈아타는 게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 흐름을 타기 시작한 시

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한다.

올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부터 지난 4월까지 순매도를 지속했다. 하지만 5월(1조2000억원)부터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고, 6월 2조7000억원, 7월 6조300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8월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다시 1조8000억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9월 들어서는 9거래일 만에 3조3000억원 수준의 순매수를 보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3200에서 3300까지 올라가는 이번 랠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역할이 컸다”며 “최근 주가 상승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 연준 금리 인하 방향,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된 우려 완화 등이 주요했다”고 짚었다.

다만 박 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수준이 과열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가격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만큼 기대 수익 관점에서는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동결을 확정하더라도 기존보다 완화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린다. 낙관적으로는 연말 최대 35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된다. 추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 모멘텀이 남아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존재한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과 키

움증권이 올해 상단을 3550포인트로, 유안타증권과 교보증권은 3500포인트, 삼성증권은 3400포인트를 제시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철회 등으로 시장 진화적, 효율주의적 스탠스가 재차 확인됐고, 9월 정기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정부 스탠스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구조적 목표를 고려하면 연말 지수는 3000포인트 이하보다는 사상 최고치 이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긍정적 시나리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30% 미만, 자사주 매입 소각 유예 1년 미만 등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8월에 세계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원상복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수의 추가 랠리 여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대 최대치인 3300포인트는 상회하겠으나 상호관세나 기업 실적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해당 레벨에 안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호재와 악재 동반… 韓 증시 ‘불안한 축포’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후 선택하세요”

국내외 시장 전망·투자 전략

美 금리인하 기대감 투자자 증가
“단발성 아닌 인하 사이클의 시작
수혜주 탐색… 자금유입 등 호재”

美 관세·고용쇼크 등 ‘악재’ 우려
국내 AI·바이오·조선 수혜주 꼽아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안한 축포를 쓰고 있다. 헷살과 먹구름이 교차하면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반면, 미국의 ‘고용쇼크’는 투자자들에게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을 안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전쟁도 증시를 짓누른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또 어떻게 하면 글로벌 변수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 자산을 잘 굴릴 수 있을까?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국내외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발 증시 혼풍 불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풍을 몰고올 것으로 봤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 이하일 확률은 총 7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남은 세번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이 3회(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달 FOMC에서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고용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50 포인트(0.80%) 오른 3341.03 포인트를 나타내며 상승 출발한 모습. /뉴스시스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신호로 해석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9월 50bp(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되고 고용 성장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주식시장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 탐색이 시작될 것이고, 한국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식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금융시장을 긴장시킨다.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침체의 징조라면 금융시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바이오 업종 주목

개미(개인투자자)의 시선은 여전히 미장(미국시장)에 머물러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해외 주식 결제액은 504억2000만달러(약 70조2800억원)로, 7월보다 3억7000만달러 늘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가

호황을 보이는 반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 구호와 달리 3100~3200대 박스권에 머무른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이날 장중 신고가(3344.70)를 새로 쓰면서 투자심리에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가치주와 AI·바이오 등 신성장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나 연구원은 “이달(9월) 정기 국회 시작에 따른 상법개정안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등 가치주가 여전히 선호되는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이 신성장 업종에 집중되고,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사주 매입 여력이 큰 곳도 관심대상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시장 상승은 밸류에이션 확대, 특히 상법·세법 개정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요 요인”이라며 “주주환원정책 확대 분위기 속에서, 자사주 매입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수급 개선으로 인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 개선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을 개선해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율 세분화해 제공하고, 상품 특성에 따른 분류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11일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는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된다. 기존에는 예금과 국제·통안채 등 채권을 함께 묶어 수익률을 산출해 금리 변동 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성격이 다른 상품을 명확히 구분

해 투자자가 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은 제도(D·B·DC·IRP), 상품(원리금보장·비보장), 기간(1·3·5·7·10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공한다. 최근 비대면 IRP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어, 이용자는 동일 조건에서 사업자별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춘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가 제공된다. 주식형·채권형 등 유형,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이 한눈에 공개돼 동일 등급 내에서도 성과와 비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금은 장기 운용 특성이 강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7년, 10년 등 장기 수익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KODEX ETF 순자산 90조 돌파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 KODEX가 업계 최초로 순자산 9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와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채권형·파킹형 ETF, 미국 대표지수 추종 상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된 결과다.

삼성자산운용은 11일 KODEX ETF 순자산이 9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80조원을 돌파한 이후 7월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 KODEX는 총 220개 상품을 운용하며 시장 점유율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 운용사 기준 세계 4위 규모의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대표지수 상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6월 말 이후 KODEX 미국S&P500은 7351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은 5458억원 늘어나며 두 상품의 순자산 합계가 8조원에 달했다. KODEX 미국S&P500은 상장 4년 4개월여 만에 순자산 5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채권형과 파킹형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같은 기간 1조6090억원 증가했고, KODEX CD금리액티브(3594억원), KODEX CD1년금리플러스(1754억원)도 확대됐다.

/허정윤 기자